

그동안의 편집방식

지난 35년간은 WYSIWIG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. 당시에는 획기적인 편집방식 이었다. 편집자가 컴퓨터 화면상에서 인쇄물의 서체, 크기 , 색 등을 직접 확인 하면서 편집할 수 있었다. 그러나 이런 방식에도 취약점이 있다. 취약점이란 편집자들에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. 일반인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.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형성 되었다. 그리고 이들의 단가는 차츰 편집제작의 병목이 되고 있다.